



기획재정부

보 도 자 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6. 8.(수) 09:00	배포 일시	2022. 6. 8.(수) 07:00
담당 부서	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	책임자	과 장 신준호 (044-215-8710)
		담당자	사무관 이명진 (mjlee53@korea.kr)

2022년 세계은행(World Bank) 세계경제전망 발표

- 세계은행(WB)은 6.7.(화) 9:30(美 워싱턴 D.C 기준, 한국시각 6.7.(화) 22:30)에 「세계경제전망(Global Economic Prospects)*」을 발표하였음

* WB는 매년 2회(1월, 6월) 「세계경제전망」을 발간하며,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

- 주요 내용 및 전망치는 첨부*를 참고

* 2022.6월 세계은행(World Bank) 세계경제 전망 주요내용 및 전망치

※ 참고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요약·정리한 자료이므로 상세 내용은 WB Global Economic Prospects (www.worldbank.org/gep)를 참고

참고 1

2022년 6월 세계은행(World Bank) 세계경제전망 주요내용

- ① **[세계경제 전망]**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2.9%* (선진국 2.6%, 신흥·개도국 3.4%)으로, '22.1월 전망 대비 하향 조정($\Delta 1.2\text{p}$)

* 성장률 전망 비교(1월→6월) ('22년) 4.1% → 2.9% ('23년) 3.2% → 3.0%

※ IMF 성장률 전망('22.4.19) : ('22년) 3.6% , ('23년) 3.6%

OECD 성장률 전망('21.12.1) : ('22년) 4.5% , ('23년) 3.2%

- **(원인)** '22.1월 대비 성장률 하향의 주요 원인으로 ①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, ②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(Dual Shocks)에 따른 인플레이션, 공급망 불안정성, 재정·통화 긴축정책 등 제시
 -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에너지 시장의 가격 급등 및 불안정성 심화,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개도국의 빈곤 악화 등을 초래
 - 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선진국의 통화 긴축정책 야기
→ 이자비용 증가에 따른 개도국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짐
- **(정책제언)** 성장, 거시경제 프레임워크 강화, 재정 불안정성 완화,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강제적이고 다각적인 정책* 추진 필요

* (원문) A forceful and wide-ranging policy response

- ② **[지역별 전망]** 선진국과 신흥·개도국 모두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성장률 저하, 유럽·중앙아는 마이너스 성장 예상

(단위: %)		세계	미국	유로존	동아태	유럽 중앙아	중남미	중동 북아프	남아시아	사하라 이남
6월 전망	'21년	5.7	5.7	5.4	7.2	6.5	6.7	3.4	7.6	4.2
	'22년	2.9	2.5	2.5	4.4	$\Delta 2.9$	2.5	5.3	6.8	3.7

- **(선진국)**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, 재정·통화 긴축정책, 공급망 불안정성 → 전년대비 하락('21년 5.1→'22년 2.6)

- (미국)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, 재정·통화 긴축정책, 공급망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2.5% 성장 전망('21년 5.7→'22년 2.5)

- (유로존) 주요 국가들의 '러' 産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
→ 인플레이션('22.2월 5.8%) 초래, 2.5%* 전망('21년 5.4→'22년 2.5)

* '22.1월 대비(4.2%), 주요 유로존 국가들의 에너지 보조금 정책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플레이션, 공급망 등 경제 하방 리스크 일부 완화(△1.7%p)

○ (신흥·개도국) 불완전한 팬데믹 피해 회복 및 우크라이나 침공
→ 기본필수품 소비 비중이 높아 더 큰 피해('21년 6.6→'22년 3.4)

- (동아태) 중국의 국경봉쇄(lock-down) 등으로 인한 경제부진이 다른 지역의 회복세를 상쇄하여 4.4%* 전망('21년 7.2→'22년 4.4)

* 중국 제외 시 4.8%('22.1월 5.0%) → '22.1월 대비 하향 조정 원인은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소비재 수입 비중이 높은 동아태 국가들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 반영

- (유럽·중앙아) 연초 생산규모(output)는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
→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('21년 6.5→'22년 △2.9)

* '22.1월 대비(3.0%), 전쟁에 따른 파급효과(spillover effect), 유로존 국가들의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, 보다 강한 거시정책의 긴축 수준 등 반영(△5.9%p)

- (중남미) '21년 경제회복세(6.7%)의 성숙(maturity),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, 외부수요 감소 등으로 인하여 2.5%('21년 6.7→'22년 2.5)

- (중동·북아프리카) 석유 매출 증가, 코로나19 영향 약화, 이집트 등 일부 국가 구조개혁 등으로 인해, 5.3% 전망*('21년 3.4→'22년 5.3)

* '22.1월 대비(4.4%), GCC(걸프협력회의) 국가들의 경제 상황 개선 등으로 인해 상승 전망이나,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석유수요 감소, 인플레이션 등이 부정적 영향

- (남아시아)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 모멘텀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외부수요 및 실질임금 감소 등에 상쇄되어 6.8%('21년 7.6→'22년 6.8)

- (사하라 이남) '21년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가 인플레이션 및 긴축 정책으로 인한 국내수요 감소에 상쇄, 3.7%('21년 4.2→'22년 3.7)

참고 2

2022년 세계은행(World Bank) 세계경제 전망치

(단위 : %, %p)

	2019	2020	2021 ^e	2022 ^f	2023 ^f	'22.1월 전망 대비 조정폭	
						2022 ^f	2023 ^f

■ 경제성장률 (시장환율 기준)

(세 계)	2.6	△3.3	5.7	2.9	3.0	△1.2	△0.2
○ 선진국	1.7	△4.6	5.1	2.6	2.2	△1.2	△0.1
- 미국	2.3	△3.4	5.7	2.5	2.4	△1.2	△0.2
- 유로지역	1.6	△6.4	5.4	2.5	1.9	△1.7	△0.2
- 일본	△0.2	△4.6	1.7	1.7	1.3	△1.2	0.1
○ 신흥시장·개도국	3.8	△1.6	6.6	3.4	4.2	△1.2	△0.2
(동아시아·태평양)	5.8	1.2	7.2	4.4	5.2	△0.7	0.0
- 중국	6.0	2.2	8.1	4.3	5.2	△0.8	△0.1
(유럽·중앙아시아)	2.7	△1.9	6.5	△2.9	1.5	△5.9	△1.4
- 러시아	2.2	△2.7	4.7	△8.9	△2.0	△11.3	△3.8
(중남미)	0.8	△6.4	6.7	2.5	1.9	△0.1	△0.8
- 브라질	1.2	△3.9	4.6	1.5	0.8	0.1	△1.9
(중동·북아프리카)	0.9	△3.7	3.4	5.3	3.6	0.9	0.2
- 사우디	0.3	△4.1	3.2	7.0	3.8	2.1	1.5
(남아시아)	4.1	△4.5	7.6	6.8	5.8	△0.8	△0.2
- 인도	3.7	△6.6	8.7	7.5	7.1	△1.2	0.3
(사하라이남)	2.6	△2.0	4.2	3.7	3.8	0.1	0.0
- 남아공	0.1	△6.4	4.9	2.1	1.5	0.0	0.0
■ 국제무역량 (전년 대비)	1.4	△8.0	10.3	4.0	4.3	△1.8	△0.4
■ 국제유가 (전년 대비)	△9.9	△33.9	66.5	42.0	△8.0	35.0	3.8